No.15 - 노텐오카미 류오인 절

자오도에서 등롱이 늘어선 기다란 돌계단을 내려가면 깊은 골짜기의 급류 위에 지어진 노텐오카미 류오인 절에 다다릅니다.

노텐오카미 류오인 절은 쇼와 26 년(1951)에 당시 간레이(管領, 긴푸센지 절의 주지)를 맡았던 고조 가쿠초가 창건한 곳으로, 자오도 서쪽 계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폭포로 가던 도중, 머리가 깨진 채 죽은 뱀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뱀을 안타깝게 여기고 극진하게 명복을 빌자, 다음날부터 꿈에 뱀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한 사람에게 빙의하여 '공경히 모시어라, 모시어라. 나는 머리가 깨진 산기슭의 뱀이요, 자오의 변화신이다. 노텐오카미의 신으로 모시어라. 목 위의 어떤 고치지 못할 병이든, 고난이든 모두 구하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긴류오(金龍王) 땅에 묘표가 세워졌다가 많은 참배객이 방문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텐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내에 있는 호센보(寶泉坊)에는 갓난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부처인 수자지장존(水子地藏尊)이 모셔져 있으며, 8 월 22 일 대제가 열리는 날에는 수많은 참배객들로 붐빕니다.